



伽倻山編에 諸洙千會員이 焦点人物로

○...1.29. 밤11시부터 약30분동안 KBS1TV 「韓國의 自然」에 해발 1,430m 伽倻山頂上의 雲海와 해돋이, 母子바위, 용기폭포, 星州쪽 白雲洞과 修倫面民의 신앙의 대상으로 내려온 갖가지 逸話·헬기로 본 伽倻頂上의 連峰과 城址, 중봉의 枯死木群, 참나무에 달린 靈芝버섯도 보였다. 鄉土寫師作家인 諸洙千씨(56·本會 伽倻山北部支部 事務局長)의 방대한 가야산사진자료가 四季의 伽倻山을 숨김없이 보이는데 큰 도움이 된듯. 간간이 諸씨의 쪽박으로 한모금 물마시는 無言의 表情도 것들인 異色の이며 自然스런 編輯. 山은 우리의 모든것을 감싼집이라고도.

公園溪谷등 汚染告發報道가 核心이 없어...

○...2.9. 아침7시40분 KBS1TV 뉴스에는 伽倻山국립공원의 어느溪谷이 工場廢水로 汚染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온갖 쓰레기와 汚水의 放流를 보였는데 가장 重要한 位置의 說明이 나오지 않아 責任所在가 어디인지 分間못할판. 앞으로는 拔本塞源을 위해 좀더 根源을 캐내어 버리는者를 勸導하는 積極적 자세로 전환해주었으면 싶다. 溪谷이라 하더라도 公園區域外도 있으며 位置가 明確치 않으니 告發의 效果가 없어 아쉬운일.

바다제비의 암수音聲분리녹음에 成功

○...MBC-TV 교양제작국은 無人島를 번식처로 살아가는 海洋조류의 생태와 무인도의 생태계를 조사한 자연다큐멘터리 16편·“해양조류의 낙원 無人

島”를 2월28일 90분간 방영. 이번 취재팀은 翁진군의 신도에 서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번식과정을 최초로 촬영한것과 北濟州군 사수도에 서식하는 습새의 서식숫자가 6천여마리나 된다는 사실. 小黒山島의 구굴도와 비금도 부근의 칠발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의 암수가 다른 독특한 음성을 분리녹음하는데 성공하는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중요사실도 밝혀 화제.

아직도 世界海洋地圖엔 獨島가 岩礁로 表示



▲ 독도 1989. 4. 20~25. 로프에 매달려 나무심는다.

○...3.25. 하오5시10분부터 40분까지 KBS-TV는 獨島의 再發見프로를 放映하여 熔岩덩어리인 獨島를 死守하던 休戰직후의 故 洪순철 수비대장등의 武勇談을 다시 한번 回想시켜주었다. 그때 함께 수비했던 金秉烈(60)씨의 회고를 보면 6.25격전장에서 싸웠던 血氣왕성한 울릉군의 젊은이들이 獨島決死守備隊를 조직, 日人들이 몰래 꽂아둔 「돛리깁」패말을 뽑아 버리고 계속 침투해오는 것을 박격포등으로 혼내주고 후퇴시켰다는 것.

이들은 한결같이 政府의 外交활동을 갈망하는 눈치. 즉 「아직도 世界의 海洋地圖에는 獨島가 岩礁로 表示된것을 왜 是正치 못하느냐?」고.....

—MTV—

야황산까스—「안보이는것이 더 두렵다」

○…3.27. 밤11시 MBC-TV 「公害 이대로 둘수 없다」의 프로서 金俊鎬교수(서울大植物學)는 南漢山城의 地依類와같은 植物에도 環境被害가 나타나고 있음을 指摘하면서 서울중요의 잣나무와 시골잣나무의 生態가 大氣오염탓으로 크게 달라진點등을 例示하여 경고. 그는 工場 주변市民이 못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보이는것이 더 두렵다고. 야황산까스는 電鐵의 電線도 끊고 建物도 파손시키고 있음을 想起.

—KTV—

植木日 특집 英·獨 山林보호상황 소개

한편 KBS-1TV는 식목일을 맞아 4.5. 오후1시 50분 英BBC 제작다큐멘터리 「산성비와 森林」을 2TV는 서독의 林業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는 植木日 특집 「산림부국 독일을가다」을 5일 오전11시20분에 방영.

「장학퀴즈」 581회부터 進行아나 交替

MBC-TV 「장학퀴즈」(일요일 오전7시10분) 진행자로 17년동안 활약해온 車仁泰아나운서가 4월15일 850회를 끝으로 이 자리를 떠나고 앞으로는 孫石熙아나운서가 맡는다.

희귀野生春蘭을 캐면서 자연훼손 아니라고

KBS-1TV는 노사분규로 인해 수일동안 프로편성에 큰지장을 받고있어 무리한 프로편성의 고충이 역력한데……4월28일 아침의 「전국일주」 프로에는 하필이면 지난3월16일에 방영되어 아침기분을 상하게만든 咸平의 난애호인들이 쇠갈구리로 野生의 春蘭採取장면이 또 등장. … 그 고장의 명물이나 자연환경, 자연자원을 소개하는것은 좋으나 智異山깊은 山中에서 희귀약초를 캐내는 장면이나 蘭의 멸종을

防止한다는 허울좋은 口實로 이것을 採取하는 장면까지 방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 걸작인것은 「이것은 자연훼손이 아니냐?」는 리포터의 질문에 뜻을 알수없는 알송달송한 답변이 나오고 「그럼 자연훼손이 아니군요」… 하는 리포터의 周調型的 말투엔 아연失色. 희귀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野生蘭을 소위 난애호가들이 모조리 캐내 옮겨야만 속이편한 것인지 묻고 싶고 정말 사랑한다면 보호회에서 캐내지못하게 당국을 움직여 감시를 해야야 옳은 것이 아닌지?

「獨島는 우리땅」 노래가 부끄러운 行政

○…작년봄부터 푸른獨島가꾸기 운동을 벌인 「푸른독도가꾸기모임」(회장 이덕영·43) 문화영화감독 겸 사진작가이며 자연관계시청각교재제작자인 金正明씨(45)등은 올해도 심은 묘목을 망치는 갈매기떼들과 싸우면서 푸른독도가꾸기에 열기가 대단. 그동안 각 TV는 물론, 日刊스포츠, 대학연합신문, 주간조선, 아시아나 등 많은 출판물을 통해 이들의 노고담과 자문해주는 교수, 소설가, 작곡가, 승려, 시인, 사업가등의 얘기도 소개되어 돌덩어리 섬으로만 알려진 독도가 마침내 푸른옷을 입게된데 관심이 모여지게 되었다.

지난4월10일 金正明씨에 의하면 나무가 못자라는 원인이 海風이 아니라 갈가먹어치우는 갈매기떼와 토끼라는 사실이 밝혀져 대책만 세우게 되면 푸른독도가꾸기운동은 성공될 것이라 장담.

그는 또 독도를 3월1일자로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하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獨島는 아직 山 이름이나 地名, 地番등이 없는것이 안타까와 建設部國立地理院(院長 鄭淳虎)에 의뢰했다는것.

그런데 국립지리원에 조회하였던바 전혀 그런 신청이 온바없으며 地名을 짓기 위해서는 該當郡(울릉군)심의위원회서 통과되어 慶北道심의위를 거쳐 절차에 따라 올라와야 한다는것. 80年代初 「獨島는 우리땅」이란 노래까지 나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는판에 아직도 地番이나 山 이름, 봉우리 이름하나 짓지않고 있는 行政家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평가해 주어야 할까.(浪)